

제10차 5개년 개발계획 확정

중국은 2001~05년 기간 중 추진하게 될 국민경제 및 사회 발전을 위한 제10차 5개년 개발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을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제9기 제4차 전체회의에서 채택하였다.

동 회의에서 대표들은, 지난 제9차 5개년 개발계획에서 공산품 공급부족 해소, 농산물 생산 증대, 구조조정을 통한 노후·과잉 생산시설 정리 및 핵심기업의 설비교체, 정보통신 산업 육성, 민간부문 활성화 등을 통해 연평균 8.3%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2000년도 GDP는 8조 9,404억 위안(1조 800억 달러 상당)에 달함으로써, 초보적인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가 구축되고 국민생활이 어느 정도 안락한 상태(小康)에 도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한편, 지난해 대외교역액은 4,743억 달러(수출 2,492억 달러, 수입 2,251억 달러), 외환보유액은 1,656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경제성장과 효율 동시 추구

중국은 지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토대로 제10차 5개년 계획기간 동안 다음 몇 가지의 기본 방침과 목표 하에 개발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첫째, 경제발전 속도와 효율의 동시 추구이다. 이는 계획기간 동안의 연평균 7% 정도의 경제성장 목표에서 잘 드러난다. 고도 경제성장은 경기과열과 중복·과잉 투자를 불러올 수 있고, 이는 다시 구조조정이라는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기 때문에, 성장속도를 다소 낮추어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산업 구조조정의 지속적인 추진이다. 중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경제 발전 속도를 중시하여 양적인 성장에 치중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경제 발전의 지속과 더불어 산업별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질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구조조정을 통해서 농업부문의 위상 제고, 공업부문의 경쟁력 강화, 서비스 산업 발전, 정보화 사회 건설 등을 이루어 내겠다는 것이다.

셋째, 개혁·개방 확대와 과학기술 발전을 경제성장의 엔진으로 삼을 계획이다.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과거 계획경제 체제의 구습을 탈피하

고 국내시장을 확대 개방하는 한편, 과학기술과 교육 발전에 역점(科教興國)을 둘으로써 경제발전의 기초를 다지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 취업기회 확대와 농민소득 증대를 통한 생활수준 향상, 생태환경 보호, 법률·제도 정비 등을 통해 지속적인 경제발전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0년에는 GDP를 2000년의 두 배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표 1> **제10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

	2000	2005	비 고
G D P	8조 9,404억 위안 (1조 800억 달러)	12조 5,000억 위안 (1조 5,000억 달러)	8.28위안/US\$
G D P 증가율	8%	7%	연평균 7%
1인당 G D P	854달러	1,135달러	8.28위안/US\$
도시 실업률	3.1%	5%	
수출입 총액	4,743억 달러	6,800억 달러	
1,2,3차 산업 비중	18%, 49%, 33%	13%, 51%, 36%	

산업의 균형발전 도모

중국은 경제의 고효율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지속적인 고도 경제성장을 이룩한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중국이 안고 있는 경제구조상의 문제는 크게 산업구조의 불합리, 지역발전의 불균형, 도시화 수준의 미흡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이 중국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경제 구조조정의 전략적인 추진 목표로 ① 고비용·저효율·고오염의 산업구조 개선, ② 농업·공업·서비스업의 수준과 효율 향상, ③ 지역간 산업생산의 합리적 재조정을 통한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촉진, ④ 점진적인 도시화 추진을 통한 도·농간의 유기적 경제발전 도모, ⑤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확충과 생태환경의 보호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발전 기반 조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번 전인대에서 채택된 제10차 5개년 계획에서 추진될 내용은 <표 2>와 같이 크게 17개 항목으로 나뉘어 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그 계획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공업부문의 구조조정 가속화이다. 이를 위해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① 기술 개발과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전통산업의 기술개량을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다품종 소량생산, 품질 및 생산성 향상, 에너지 절약과 오염방지에 중점을 둔다. 기술개량 대상에 포함될 업종은 에너지, 야금, 화학, 기계, 자동차, 건축자재, 의류 등 경공업과 건설업 등이며, 특히 이들 업종의 핵심 기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② 기술 개발 및 도입으로 범용·조립·핵심 기술의 개발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기계설비는 물론, 대형 플랜트 설비 제조능력을 배양한다.

③ 정부가 선정한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몇 개의 대기업이나 기업 집단(그룹)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국·내외 증시 상장, M&A, 기업 결합 등을 통해 핵심산업 위주로 전문화를 추구한다.

④ 기존 공업지역의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이를 지역이 갖고 있는 기초기술과 인적자원의 우위가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이 밖에 품질 미흡·자원 낭비·환경 오염·안전 생산시설 미비 등의 문제 가 지적된 광산의 폐쇄, 노후 및 과잉 생산설비의 정리 내지 축소, 장기간 경영손실·자본잠식·흑자전환 곤란 기업 등의 폐쇄를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표 2> 제10차 5개년 계획의 중점추진 내용

1. 농업부문 지위 강화	9. 인력자원 집중 육성
2. 공업부문 구조조정을 통한 국제경쟁력 제고	10. 인구와 자원관리 대폭 강화 및 생태환경 보호 중시
3. 서비스업 발전	11. 개혁 지속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4. 정보통신 발전으로 정보화 추진	12. 대외개방 확대로 개방경제 추진
5.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	13. 취업기회 확대와 사회보장제도 정비
6. 서부 대개발 실시	14. 국민 생활수준 향상
7. 도시화 추진으로 도·농 공동 발전	15.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
8. 과학기술 수준 향상	16. 사회주의 민주적인 법질서 건설
	17. 국가 방위태세 강화

둘째, 첨단기술 산업의 육성을 통한 공업발전 달성이이다. '863 계획'¹⁾에서

1) '863 계획'은,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첨단 과학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자 이에 자극을 받은 중국의 과학자들이 1986년 3월 당시 최고 실력자인鄧小平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시작되었음. 동 계획의 명칭은 시작된 시기에서 비롯된 것임. 지금까지 동 계획에 총 15억 위안(1.8억 달러 상당)을 투입하여 항공우주·신소재·지문감식 장치·로봇·자기부상열차·유전자 공학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고속 광대역 통신망·고성능 컴퓨터·초대형 집적회로·대형 소프트웨어·정보기술·생명공학·신소재·백신·로봇·항공기·신형 인공위성 등의 첨단 과학기술 산업을 발전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 산업 관련 제조기술의 발전을 통해 설계능력을 제고하는 한편, 정보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정보화를 이룩하고, 이를 토대로 공업화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표 3>

중국의 에너지 소비 현황

	1995		1996		1997		1998		1999	
	백만 톤	비중								
원유	160.7	9.7	174.4	9.8	185.6	10.7	190.3	11.3	200.0	13.3
천연가스	15.9	0.9	15.9	0.9	17.4	1.0	17.4	1.0	19.3	1.3
석탄	635.7	38.2	676.9	38.1	649.3	37.2	614.0	36.5	511.0	33.9
원자력	3.3	0.2	3.7	0.2	3.7	0.2	3.9	0.2	4.1	0.3
수력	16.0	1.0	16.1	0.9	16.1	0.9	17.1	1.0	18.2	1.2
땔감 등	831.6	50.0	887.0	50.1	872.1	50.0	842.6	50.0	752.6	50.0
계	1,663.2	100	1,774.0	100	1,744.2	100	1,685.3	100	1,505.2	100

주: 원유를 제외한 기타 에너지는 원유로 환산한 것임.

자료: BP Amoco.

셋째, 수리시설·도로·철도·에너지 등의 인프라 건설 추진이다. 중국 화베이(華北) 지방의 수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절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절수기술 보급과 절수형 산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수자원 오염을 엄격하게 규제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창장(長江)의 풍부한 수자원을 건조지역인 화베이 지역으로 수송하는 대규모 건설공사(南水北調)를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도로·철도·항만·공항·송유관·가스관 등의 인프라 확충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여기에는 중국 서부지역의 천연가스를 동부지역으로 수송하는 공사(西氣東輸), 송전 공사(西電東送), 칭짱(青藏: 青海省 格爾木에서 西藏 拉薩까지) 철도 부설공사 등의 대형 프로젝트가 포함되어 있다. 국내 유전개발과 원유생산이 경제개발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여 공급부족 현상이 더욱 심화됨에 따라, 해외 유전개발과 수력·화력·원자력 발전소 건설로 에너지 공급을 확충하고, 원유의 전략적 비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국에서는 땔감 등 생태 연료에 의한 에너지가 여전히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석탄이 주된 환경 오염원으로 지적되면서 최근 원유와 천연가스로의 대체가 점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넷째, 서비스 산업의 적극 육성이다. 서비스 산업은 WTO 가입에 따른 서비스 부문의 대외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국유기업 개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이다. WTO 가입 일정에 따라 은행·보험·통신·무역·유통·관광·컨설팅 등 서비스 분야의 개방이 확대될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를 계기로 정부는 서비스 분야를 발전시켜 지난해 GDP의 33%를 차지한 3차 산업 비중을 2005년에는 36%로 높이고, 국유기업 개혁과 도시화 추진으로 점차 증대되는 도시 실업률을 5% 수준²⁾에서 억제할 계획이다.

앞에서 언급된, 그 동안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표출된 문제점 외에 지역경제의 블록화, 시장경제 체제의 미비, 부정부패의 만연, 형식주의와 관료주의의 팽배, 자본·기술집약 산업의 낮은 국제경쟁력 등도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개발과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하면서 이러한 문제점을 점진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다른 한편으로 WTO 가입이 임박함에 따라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경제질서를 국제규범에 맞게 점진적으로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시장개척을 위한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관심 필요

우리 기업들은 향후 중국 정부의 정책변화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한편, 이러한 변화에서 시사점을 찾아 중국 진출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제10차 5개년 계획의 내용에서 나타난 중국 정부의 정책목표에 맞추어 중국 진출 확대방안을 강구해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들로는 다음 몇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유망 중국 기업의 지분취득이나 인수를 통한 진출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국은 전력·통신·원유·철도·철강·항공·첨단기술 분야의 경우, 대기업에 대해서는 국유부문이 경영권을 확실히 장악하도록 하는 반면, 중소기업과 상기 분야 이외의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인자본 비율 제한을 철폐하

2) 중국의 실업률은 도시 근로자 중 실질자로 등록된 자만으로 한정하여 산정해 왔음. 따라서 실제보다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 실업률 증가 이유는 첫째, 도시화의 적극 추진에 따른 농촌의 도시 편입으로 농촌 인력 가운데 상당수가 실직자로 등록, 둘째, 기업 구조조정에 따른 합병과 파산으로 실직자 증대, 셋째, 취업 서비스 센터를 점진적으로 폐쇄하는 한편, 종전 직장의 소속을 그대로 가지고 있던 샤강(下崗)제도의 폐지로 샤강 근로자들이 실업자로 전환 등임.

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둘째, 첨단기술 산업을 중심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중국은 기초과학·신소재·항공 우주 등의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반도체·통신 등의 분야에서 상대적인 기술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호 협력체제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금융산업에 대한 진출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해 대 중국 수출입 총액 312.5억 달러, 1999년 말 현재 직접투자 실행액 88.4 억 달러로 중국의 4대 교역국, 7대 투자국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금융기관 수는 10여 개에 불과하여 기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금융 서비스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날로 증대되고 있는 중국과의 경제교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진출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하겠다. 또한 중국이 상하이(上海)를 국제금융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 기존의 상호주의 원칙을 버리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출 경우 금융기관 진출을 허용하게 된다는 점도 고려할 사항이다.

넷째, 우리 정부도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지역간 경제 불균형 해소를 위한 서부 개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이 서부지역에 진출하는 데는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면, 개방화 지연에 따른 관료의 행정 편의주의와 시장경제 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태세 부족, 관련제도의 미비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 서부 개발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경제협력기금 등을 활용한 진출기반 확보 등의 정책적인 접근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金周永】